

기술 품질 뛰어난 중소기업 39개 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

- 조달청, '26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개최
- 기술·품질 우수 39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벤처기업이 59% 차지
- AI, 로봇, 저탄소 등 기술선도 중소기업 제품 발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39개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 별첨>

이번 회차에서는 총 259개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기술·품질 심사를 거쳐 39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

* 지정 제품은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조달청 누리집 > 조달업무 > 우수제품 > 공지사항)

이번 지정제품 중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을 활용한 빌딩자동제어 시스템, 스마트 전자칠판,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등 미래 기술선도 중소기업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전체 중소기업 중 1% 미만인 벤처기업이 이번 지정업체 중 59%를 차지해 우수제품 지정제도가 획기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 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제도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원 규모의 우수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공급되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최대 6년(기본 3년+연장 최대 3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공공조달업무의 인공지능 전환(AX)의 일환으로 이번 우수제품 지정 심사부터는 'AI를 활용한 제품별 기술비교분석표'를 작성하여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효율성을 높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이룬 우수 중소 벤처기업이 공공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조달기업에게 다양한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책임자	과 장	노현주 (042-724-7281)
		담당자	사무관	장종삼 (042-724-7295)